

전주시, 탄소 실용화 원천기술 개발 '집중'

탄소융합기술원, 파트너십 강화 등 3개 경영방침 집중 추진 '연구소 기업' 집중 육성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탄소산업의 실용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연구소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은 올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탄소산업 실용화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로 연구소기업 설립 및 기업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탄소 실용화 원천기술 확보 △파트너십 강화 △역량 강화를 3대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탄소섬유와 탄소섬유복합재, 다공성 탄소, 전도성 탄소 등 4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와 기술원은 지난 1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자동차부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아자동차와 신기술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월에는 아이에스동서(주)와 탄소섬유복합 건설자재 상용화 실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자동차와도 기술원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탄소복합재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탄소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기술실용화를 목적으로 올해 상·하반기에 'KC TECH DAY'를 개최할 예정이다. JEC World 2019 참가와 JEC Asia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우수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기조에 발맞춰 부응하고있는 탄소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탄소소재가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CNG차, 전선소재의 경량화, 항공우주미세첨산소재에 사용되고 있고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연료탱크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수소 연료탱크와 CNG 고압용기의 시장 성장이 4배이상 성장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원은 미세먼지 대책수립에도 탄소산업이 한 몫 할 것으로 내다보고 활성탄소 사업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감감할 기술력을 확보해 관련 산업과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본격화되는 기술원의 탄소복합재 신소재 기반구축사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사업은 탄소복합재 활용제품의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억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신리성평가센터 건립과 관련 장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지난 2월 19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섬유화학연구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전주시와 전북도, 기술원이 앞장서 노력해 왔던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전담 부서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기술원의 2019년 3대 경영방침인 실용화 원천기술 확보와 파트너십 강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설공단, 생활체육 강사와 소통의 날 진행

전주시설공단은 고객과의 접점이 큰 생활체육 강사를 대상으로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최근 배드민턴, 실내골프, 인라인롤러, 빙상스케이트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체육 시설 강사들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내부 만족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진행했다.

공단은 강사들로부터 시설 공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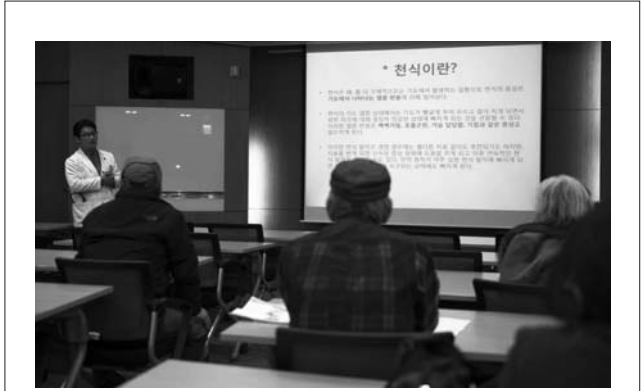
인한 휴장 시 강습 관련 애로사항과 근무 여건 및 시설별 개선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협의했다.

또 강사들을 대상으로 다중 이용시설 안전관리 현장 교육을 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전성환 이사장은 "강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개선점을 찾고 공공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어두운 도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5일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연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민들의 호흡기건강을 위한 고품질 건강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흡기건강을 챙기는 방법'

전북대병원, '알레르기·만성 폐질환 교실' 운영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역민들의 호흡기건강을 위한 고품질 건강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호흡기전문질환센터(센터장 이흥범 교수) 주관으로 매달 둘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2층 완산홀에서 전문의가 참여해, 고품질 건강강좌인 '알레르기 교실, 만성 폐질환 교실'이 열리고 있다.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는 알레르기 교실은 1월에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이용철 교수), 2월에 두드러기(김소리 교수)에 대한 건강강좌가 진행됐다.

3월 5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박승용 교수의 강의로 '알레르기 질환과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를 열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박승용 교수는 강의에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기도, 폐, 심장,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해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노출을 피해야하고 외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바닥은 물론 눈과 코를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4월 8일에는 아토피피부염 및 접촉성 피부염(박승용 교수), 5월 13일(발독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이용철 교수), 6월 3일 식품 및 약물에 대한 유해 반응 및 알레르기(김소리 교수) 교실이 준비되어 있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는 대표적인 호흡기질환인 만성 폐질환 교실이 열리고 있다.

1월에는 기관지 천식(정재석 교수), 2월에는 폐암(박승용 교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3월 강좌에서는 김소리 교수의 강의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강의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4월 22일에는 호흡재활치료(원유희 교수), 5월 20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용철 교수), 6월 17일 기관지 천식(정재석 교수) 등에 대한 강의를 있을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전문인들이 제공하는 질환별 건강강좌를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37개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서 사업 대상자 확정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5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37개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추진되는 37개 사업은 총사업비 약 41억원 규모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 신기술과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개월 동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홍보했으며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과 엄격한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평가 과정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 2019년 시범사업 대상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연계해 각종 기술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공해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

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농과대학교, 연구소, 지역핵심리더 농업인 등 전문인력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대상자 심의와 지역농업 발전에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 미등록 경로당 3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원진알미늄 후원 1000만원 상당 시설 장동경로당 등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에어컨과 난방기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냉·난방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민간업체의 후원을 받아 농촌지역 미등록경로당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5일 전주시장실에서 미등록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기념하고 후원한 민간업체에 감사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등록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시범사업은 전주시가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 한파로 인해 냉·난방기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유)원진알미늄(대표 원경의)이 후원한 10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삼천3동 장동경로당과 송천2동 연봉경로당, 조촌동 대흥경로당 등 전주지역 농촌동 미등록

경로당 3개소에 각각 설치했다.

원경의 원진알미늄 대표는 이날 "태양광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전북 업체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돼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폭염이나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큰 도움을 주신 원진알미늄 대표님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진알미늄은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알루미늄 압출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4년 알루미늄 제품 조달 국내 1위, 지난 2017년 전북지역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액 1위(18년 2위)를 차지한 기업이다.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외에도 (재)장수군애양교육진흥재단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000만원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완주군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호교체를 지원하는 재능기부에 힘쓰고 있다.

/송효철 기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자립역량 교육 실시

전주시가 빈곤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강당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자립 상태 유지를 위한 자립역량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과 재무관리 및 신용 유지, 노후준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임찬기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장이 강사로 나서 △신용의 중요성 △신용등급 높이는 방법 △대출시 주의사항 △신용증명서 대처 △과다부채 해결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했다.

/송효철 기자

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 지시 거액 뜯어

법원,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자신의 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5일 공판 형의로 기소된 A모(38)씨에게 징역 2년,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모(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채무 관계에 있는 재력가 C모(49)씨를 협박해 총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C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렸고, 운영이 어려워지자 추가로 55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C씨가 평소 아내인 B씨에게 관심이 있던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B씨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C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씨에게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4500만원의 채무면제와 5500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취득한 돈은 5500만원이고 채무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익산 주택서 경찰관 숨진 채 발견

익산 주택에서 현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8시 30분경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주택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A(45)경사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당시 동료 경찰관은 A경사가 출근하지 않아 집에 방문했다. 이후 A경사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지난해 지방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검시 등을 통해 A경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4대 추돌 1명 사망·1명 부상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일 오전 6시 2분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부근에서 1.2t 트럭과 9.5t 트럭 등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1.2t 트럭 운전자 A모(40)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부상을 입은 SUV 운전자 B모(27)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t 트럭이 앞서가던 9.5t 트럭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SUV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차량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